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 1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 2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렵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 3 세상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 후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 1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 2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 3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 담당

4/16(화)	4/17(수)	4/18(목)	4/19(금)	4/20(토)	4/22(월)
김민수1 안수집사	고성호 안수집사	김인호2 안수집사	이윤식 안수집사	박성원2 재적안수집사	박윤일 안수집사

2024년 4월 19일(금)

이른아침예배

인도 : 장지훈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429장
기도	이윤식안수집사
성경봉독	에스겔 16장 59~63절
찬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설교	『마땅히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찬송	288장
축도	설교자

📖 오늘의 말씀 <에스겔 16:59~63>

- 59 나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
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 60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
한 언약을 세우리라
- 61 내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
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 62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 63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
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4년 4월 19일(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허락하신 이 하루의 시작을, 이처럼 주님 존전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한 날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신실히 베푸셨는지를, 날마다 또한 마땅히 기억하게 하셔서, 그 주신 은혜 기억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는 선하고 바른 길 매순간 정진해 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새문안교회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교회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역사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맡기신 모든 사역의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당회와 제직, 새문안의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살아가는 데에, 그 어떤 조금의 방해도 있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속한 이 나라를 여기까지, 또한 오늘도 든든히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가 언제나 주님 손 위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위정자들을 친히 세워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자유가 실현되는 나라,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애통함과 안타까움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올려드리는 존귀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